

食生活管理 實態에 關한 研究

—서울市內 主婦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Survey of the Meal Management

東國大學校 家政教育科

助教授 劉 永 祥

Dpt. Home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Assistant Prof. Young Sang Yoo

<目 次>

I. 序 論

1. 研究目的

2. 研究內容

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 方法 및 期間

2. 調查資料의 處理

III. 結果 및 解釋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狀況

2. 食生活 管理實態

IV. 結論 및 提言

<Abstract>

One of the most pressing problems of the day in our household economy is the scientific improvement of meal management, which has direct bearings on the efficiency of housewives, domestic economy, and health care for the whole family.

The concern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meal management situation in which more than three hundred housewives in Seoul find themselves, and to propose a tentative plan for its improvement.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number of families with old-fashioned kitchens forms a percentage of 30.3; only 4.3 percent of them have waterworks and drainage system.

2) The number of families equipped with cooking machines and utensils constitutes 51.2 percent; that of these without cooking machines reaches the high percentage of 92.8.

3) The expense for daily meals amounts to 37.9 percent of the whole domestic expenses. The number of those who prepare daily meals without

any planning comprises 78 percent. It is from habit that 60.5 percent of them make no workable plan for their meals.

4) The frequency of housewives doing daily marketing is comparatively high.

5) The time spent in preparing and clearing the table is 280.4 minutes a day on the average.

6) In preparing daily meals the low income bracket tends to keep expense as low as possible, while the high income bracket is chiefly concerned with taste.

7) The frequency of home cooking is on the increase as the housewives grow older, especially in the large families with housemaids.

8) In most cases housewives do the cooking for themselves; the high income brackets have housemaids do the cooking. The number of husbands who help their wives do kitchen work a small percentage of 10--14.

9) The simplification of kitchen work presupposes the simplification of the daily cooking, the improvement of the structure and equipment of the kitchen, and a good help of the whole family.

I. 序 論

1. 研究目的

음식은 人間의 生命維持와 健康에 密接한 關係가 있으므로 食生活의 重要性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더욱이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우리들의 食生活은 많은 發展과 더불어 複雜해져서 食生活 담당자의 役割은 한층 더 加重해져 가고 있다⁹⁾.

그뿐 아니라 家庭에 있어서 食生活 담당자인 主婦들의 生活範圍와 內容이 날로 擴大되고 多樣해 지므로¹¹⁾ 食生活管理의 科學化 合理化는 必然的인 課題가 되었다.

食生活管理의 概念을 考察해 보면 玄⁹⁾은 食事와 關係되는 모든 活動과 意思決定, 그리고 實踐하는 責任을 맡은 사람을 食生活管理者(meal manager)라 부르고 그 責任의

內容을 食生活管理(meal management)라 하였다. Faye Kinder¹⁰⁾는 食生活管理는 食事에 對하여 決定을 내리는 것(making decisions about meals)이라 하였으며 食生活管理者는 家族의 要求나 水準에 따라 모든 것을 決定하게 되는데 家族食事を 위하여 必要한 資源은 non-human resource인 돈과 human resource인 時間, energy, 지식, 기술, 그리고 能力(ability)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食生活管理의 理想的인 目標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均衡잡힌 營養攝取가 되도록 할 것.
2. 食品購入費用을 豫算에 마칠 것.
3. 食事を 즐겁게 하도록 할 것.
4. 食事準備와 整理를 豫定한 時間과 節約된 勞力 限度內에 마치도록 할 것.

本 研究의 目的은 各家庭의 食生活管理者인 主婦들이 食生活을 어떻게 管理하고 있는지, 그 實態를 알아 보고 檢討해 보므로서 家庭에서의 食生活管理上의 問題를 究明

하여 食生活 向上을 위한 改善點을 파악코
져 한다.

II. 研究方法

1. 調查對象, 方法 및 期間

서울市內에 居住하는 主婦 400名을 對象
으로 1979年 6月 5日부터 1週日間 質問紙를
配付 調查하였다. 質問紙 回收率을 높이기
위해서 東國大學校 家政教育科 學生의 어머
니와 그 인접지역에 居住하는 主婦를 無作
爲로 축출해서 本 調查의 對象으로 選定하
였다.

2. 資料分析

本 調查에 使用된 質問紙의 內容은 家政
科 教授 4名, 大學院生 3名, 主婦 5名에 依
한 豫備調查 結果, 타당도가 檢證되었다.

本 調查 結果 統計處理가 不可能한 質問
紙를 除外한 總 346부를 分析資料로 使用했
으며 이에 利用된 資料分析方法은 다음과
같다.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狀況을 파악하기 위
해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使用했으며 調查對
象者의 一般의 狀況과 食生活管理實態와의
關係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X²
검증, t 검증, F 검증방식을 使用하였다.

III. 結果 및 解釋

1. 調查對象者(食生活管理者)의 一般의 狀況

本 研究의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狀況은
(表-1)과 같다.

① 主婦의 職業有無: 非就業主婦(76.9%)

〈表-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

상황변수	집 단	빈도(N)	백분율(%)
주부의 직업유무	유 무	80 266	23.1 76.9
주부의 교육수준	구 졸	29	8.4
	중 졸	58	16.8
	고 졸	148	42.8
	대 졸	111	32.1
주부의 연령 (세)	~ 30	80	23.1
	31 ~ 40	100	28.9
	41 ~ 50	115	33.2
	51 ~	51	14.8
가정의 수입 (만원)	1 ~ 20	73	21.1
	21 ~ 30	113	32.7
	31 ~ 40	58	16.8
	41 ~ 50	58	16.8
	51 ~	44	12.7
가족수 (명)	1 ~ 2	29	8.4
	3 ~ 4	121	35.0
	5 ~ 6	136	39.3
	7 ~ 8	47	13.6
	9 ~	13	3.7
가족형태	핵 가족	259	74.9
	시댁동거 확대가족	65	18.7
	친정동거 확대가족	22	6.4
가정부 유무	유	57	16.5
	시 간 계	27	7.8
	무	262	57.7
	계	346	100.0

가 就業主婦(23.1%)에 比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② 主婦의 教育水準: 高卒(42.8%), 大卒
(32.1%)이 中卒(16.8%), 國卒(8.4%)에
比해 우세하게 많았다.

③ 主婦의 年齡: 40代(33.2%)가 가장 많
았고 30代(28.9%), 20代(23.1%), 50代(14

.8%)의 順이었다.

④ 家庭의 收入: 月收入이 21~40萬원인 家庭(49.4%)이 거의 過半數를 차지했다.

⑤ 家族數: 家族數가 3~6名인 家庭이 74.3%로서 大部分을 차지했다.

⑥ 家族形態: 부부와 그 直系子女로 構成된 核家族(74.9%)이 거의 大部分을 차지했으며 시댁동거확대가족(18.7%), 친정동거확대가족(6.4%)의 順이었다.

⑦ 家庭婦 有無: 家庭婦가 없는 家庭(75.7%)이 거의 大部分이었으나, 있는 家庭도 16.5%나 되었다.

2. 食生活管理實態

1) 주방의 구조·시설 및 조리기구

① 주방의 구조는 입식(56.4%)과 절충식(13.3%)이 많았으나 在來式(30.3%)도 相當한 比率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主婦의 家事作業過程上的 애로가 많다⁴⁷⁾고 볼 수 있다.

② 취사연료면에서는 연탄(57.5%), 전기(56.1%), 석유(54.6%), 가스(54.3%) 모두가 50% 以上の 家庭에서 使用되고 있으므로 燃料은 經濟的인 面보다는 便利하고 衛生的인 面에 重點을 두고 選擇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2, 13)}.

③ 부엌내 上下水道 施設의 有無에 있어서는 上下水道를 모두 갖춘 家庭(90.8%)이 大部分이나 下水施設(3.2%), 上水施設(1.7%), 上下水施設(4.3%)를 갖추지 못한 家庭이 있음은 注目할 만한 事實이며 이의 改善이 시급하다.

④ 各家庭의 調査器具 保有실태는 전기밥솥(92.8%)과 냉장고(91.3%)는 生活必須品으로서 거의 大部分의 家庭이 保有하고 있다. 전기후라이팬(82.1%), 믹서(79.5%),

커피포트(74.9%)도 大部分의 家庭이 保有하고 있으며 오븐(51.4%), 토스타(51.2%)도 과반수 以上の 家庭이 保有하고 있으므로 調理器具 中에서 電氣器具가 차지하는 比率이 漸次 높아지고 있다⁵⁾. 이는 취사 연료면에서도 電氣燃料가 차지하는 比率이 점차 높아질 可能性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2) 食生活計劃 및 食品購入

① 食生活費의 比率: 總生計費中에서 食費(主食費+副食費+間食費)가 차지하는 비율은 <表-2>와 같다. 食費가 차지하는 비율은 正常分布曲線을 形成하는 것은 아니나 平均 37.8%(5,092.75/13,457.90 만원)로서 이를 Engel 係數에 準해 해석하면 多少 不安할 수 있는 生活로서 中流 生活水準으로 볼 수 있다.

② 食生活費 豫算作成: 食生活費의 豫算은 78%의 家庭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安³⁾의 研究 結果와 같다.

食生活費 豫算作成과 상환번수와와의 관계는, 各集團別 X²검증결과 <表-3>에 나타난 바와 같다. 食生活費 豫算作成은 主婦의 數

<表-2> 조사대상 가정의 Engel 계수

Engel 계수	집 단 분 류 ⁶⁾	빈도(N)	백분율(%)
←20	상류생활	34	9.8
←25	여유 있는 생활	40	11.6
←30	다소 여유 있는 생활	41	11.8
←35	위안할 수 있는 생활	29	8.4
←40	다소 위안할 수 있는 생활	39	11.3
←45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32	9.2
←50	다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47	13.6
←55	거주 생존 가능한 생활	20	5.8
55→	한계 이하의 생활	64	18.5
	計	346	100.0

〈表-3〉 食생활비

상황변수	집 단	월 단 위	주 단 위	일 단 위	안 세 음	계	비 고
		N (%)	N (%)	N (%)	N (%)	N (%)	
주부의 직업유무	유	34(42.5)	16(20.0)	6(7.5)	24(30.0)	80(100.0)	$df=3$ $\chi^2=4.05$ <i>n.s</i>
	무	134(50.4)	56(21.1)	24(9.0)	52(19.5)	266(100.0)	
주부의 교육수준	국 졸	7(24.1)	3(10.3)	7(24.1)	12(41.4)	29(100.0)	$df=9$ $\chi^2=33.85$ $p<.001$
	중 졸	31(53.4)	10(17.2)	6(10.3)	11(19.0)	58(100.0)	
	고 졸	67(45.3)	30(20.3)	9(6.1)	42(28.4)	148(100.0)	
	대 졸	63(56.8)	29(26.1)	8(7.2)	11(10.0)	111(100.0)	
부의 연령 (세)	← 30	43(53.8)	18(22.5)	9(11.3)	10(12.5)	80(100.0)	$df=9$ $\chi^2=18.83$ $p<.05$
	31 ~ 40	56(56.0)	21(21.0)	7(7.0)	16(16.0)	100(100.0)	
	41 ~ 50	50(43.5)	26(22.6)	9(7.8)	30(26.1)	115(100.0)	
	51 →	19(37.7)	7(13.7)	5(9.8)	20(39.2)	51(100.0)	
가정의 수입 (만원)	← 20	41(56.2)	11(15.1)	8(11.0)	13(17.8)	73(100.0)	$df=9$ $\chi^2=17.38$ $p<0.5$
	21 ~ 40	89(52.0)	39(22.8)	15(8.8)	28(16.4)	171(100.0)	
	41 ~ 50	20(34.5)	14(24.1)	3(5.2)	21(36.2)	58(100.0)	
	51 →	18(40.9)	8(18.2)	4(9.1)	14(31.8)	44(100.0)	
가 족 수 (명)	1 ~ 2	16(55.2)	10(34.5)	1(3.4)	2(6.9)	29(100.0)	$df=12$ $\chi^2=24.72$ $p<0.5$
	3 ~ 4	61(50.4)	28(23.1)	10(8.3)	22(18.2)	121(100.0)	
	5 ~ 6	70(51.5)	23(16.9)	8(5.9)	35(25.7)	136(100.0)	
	7 ~ 8	18(38.3)	9(19.1)	9(19.1)	11(23.4)	47(100.0)	
	9 →	3(23.1)	2(15.4)	2(15.4)	6(46.2)	13(100.0)	
가족형태	핵 가족	129(49.8)	59(22.8)	20(7.7)	51(19.7)	259(100.0)	$df=6$ $\chi^2=13.57$ $p<.05$
	친정동거 확대가족	7(31.8)	1(4.5)	4(18.1)	10(45.5)	22(100.0)	
	시댁동거 확대가족	32(49.2)	12(18.5)	6(9.2)	15(23.1)	65(100.0)	
가정부 유무	유	25(43.9)	12(12.1)	5(8.8)	15(26.3)	57(100.0)	$df=6$ $\chi^2=2.93$ <i>n.s</i>
	시 간 제	12(44.4)	8(29.6)	3(11.1)	4(14.8)	27(100.0)	
	무	131(50.0)	52(19.8)	22(8.4)	57(21.8)	262(100.0)	
계		168(48.6)	72(20.8)	30(8.7)	76(22.0)	346(100.0)	

育水準($p<.001$), 家族數($p<.05$), 主婦의 年齡($p<.05$), 家庭의 收入($p<.05$), 家族形態($p<.05$)에 따라 差異가 있었다. 主婦의 教育水準에서는 國卒(59.6%)에 비해 大卒(90.6%)의 경우 豫算을 세우는 비율이 높고 家族數가 적고 主婦의 年齡이 적고 低所得 層에서 豫算을 세우는 비율이 높다. 家族形

態別로는 核家族과 시댁동거확대가족이 친정동거확대가족에 비해 豫算을 세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集團에서 豫算을 세우는 경우에는 月單位 豫算編成이 支配的이었다.

食生活費 豫算을 세우지 않는 理由는 習慣이 形成되지 않아서(60.5%)가 거의 大部

〈表-4〉 食品 구입 횟수

상황변수	집 단	매일 1회	2일에 1회	주 2회	주 1회	계	비 고
		N (%)	N (%)	N (%)	N (%)		
주부의 직업유무	유	17(21.3)	29(36.3)	21(26.3)	13(16.3)	80(100.0)	$df=3$ $\chi^2=10.48$ $p<.05$
	무	85(32.0)	104(39.1)	61(22.9)	16(6.0)	266(100.0)	
가정의 수입 (만원)	← 20	9(12.3)	40(54.8)	16(21.9)	8(11.0)	73(100.0)	$df=9$ $\chi^2=24.81$ $p<.01$
	21 ~ 40	56(32.7)	54(31.6)	47(27.5)	14(8.2)	171(100.0)	
	41 ~ 50	23(39.7)	17(29.3)	14(24.1)	4(6.9)	58(100.0)	
	51 →	14(31.8)	22(50.0)	5(11.4)	3(6.8)	44(100.0)	
계		102(29.5)	133(38.4)	82(23.7)	29(8.4)	346(100.0)	

분이었고 物價變動(25.0%), 收入의 不一定性(11.8%), 食口數의 變動(2.6%)의 順으로 나타났다.

③ 食品購入횟수와 장소: 食品구입횟수는 2일에 한번(38.4%), 每日(29.5%), 週 2회(23.7%), 週 1회(8.4%)의 順이며 集團別 X^2 검증결과 家庭의 收入($p<.01$)과 主婦의 職業有無($p<.05$)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었다.

〈表-4〉에서 家庭의 收入이 많은 集團일수록, 또한 主婦가 職業을 갖지 않은 家庭에서 食品구입횟수가 많다.

食品구입장소는 市場(60.1%)이 大部分을 차지하며 슈퍼마켓(26.3%), 도매시장(10.1%)의 順으로 나타났다.

3) 食生活管理行動

① 時間管理: 食事準備에 所要되는 時間은 平均 아침 62.3分, 점심 32.7分, 저녁 77.3分이며 食事 뒷처리에 所要되는 時間은 아침 38.3分, 점심 24.4分, 저녁 44.9分으로서 저녁準備 및 뒷처리에 가장 많은 時間이 所要되며 食事準備 및 뒷처리에 所要되는 時間은 總 280.4分으로서 하루의 1/5(19.5%)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時間管理를 보다 잘 하면 단축할 수 있다¹⁾.

② 調理方法: 調理方法別로 그의 빈도를 보면 국·찌개·나물·조림·구이·튀김·부침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調理過程에서 考慮되는 要素와 상황변수와의 關係를 파악하기 위해서 各集團別 平均點數에 대한 F값과 t값을 算出했다.

平均點數의 算出은 調理時 考慮되는 5가지 要素를 가장 우선 순위로 부터 最低 5점 最低 1점의 5點尺度로 測定한 總點을 各集團別 빈도로 나누었다.

平均點數에 대한 F검증과 t검증결과 家庭의 收入을 除外한 상황변수는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收入이 적을수록 調理時에 費用을 더 많이 考慮하며, 收入이 많을수록 食性を 더 많이 考慮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庭의 收入을 除外한 상황변수는 調理時 考慮要素의 干先順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一般적으로 모든 集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要素는 家族의 食性, 음식의 맛, 營養, 費用, 調理時間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는 文²⁾ 등의 研究에서도 같은 結果였는데 調理時 營養을 먼저 考慮하도록 敎育되어야겠다.

③ 調理횟수: 상황 변수와 조리 횟수와의 關係는 밥짓기, 김치담그기, 상차리기의 3

〈表-5〉 반찬 만들 때의 고려 요소

상황변수	고려요소		영양	비용	시간	맛	식성	計	F 값
	집단								
주부의 직업유무	유		3.40	2.48	1.75	3.53	3.93	15.09	2.70*
	무		3.41	2.62	1.54	3.48	3.95	15.00	4.31**
	t 값		.02	.17	.24	.11	.05	.02	
주부의 교육수준	국	졸	3.10	3.00	1.76	3.10	3.45	14.41	1.84
	중	졸	3.21	3.72	1.66	3.40	3.79	15.78	3.92**
	고	졸	3.61	2.54	1.49	3.57	3.97	15.18	4.70**
	대	졸	3.41	2.48	1.64	3.52	4.13	15.18	4.11**
	F 값		.63	1.94	.88	.74	2.65	.71	
주부의 연령 (세)	← 30		3.15	2.60	1.64	3.46	4.03	14.88	3.52**
	31 ~ 40		3.50	2.64	1.69	3.32	3.70	14.85	2.84*
	41 ~ 50		3.51	2.64	1.60	3.63	4.19	15.57	4.07**
	51 →		3.39	2.35	1.33	3.55	3.75	14.37	3.44**
	F 값		.19	.29	.51	.87	.82	.93	
가정의 수입 (만원)	← 20		3.23	2.96	1.62	3.29	3.42	14.52	2.15
	21 ~ 40		3.36	2.73	1.55	3.54	4.02	15.20	4.47**
	41 ~ 50		3.52	2.31	3.40	3.55	3.97	16.75	.93
	51 →		3.73	1.82	1.95	3.52	4.48	15.50	4.96**
	F 값		.78	2.74*	1.43	.55	2.69*	1.87	
가 족 수 (명)	1 ~ 2		3.38	2.34	2.10	3.69	3.38	14.89	3.37**
	3 ~ 4		3.43	2.35	1.52	3.47	4.07	14.84	2.98*
	5 ~ 6		3.34	2.62	1.63	3.49	3.99	15.07	3.14*
	7 ~ 8		3.36	2.83	1.34	3.49	3.83	14.85	3.58**
	9 →		4.15	2.00	1.62	3.23	4.00	15.00	4.53**
	F 값		.36	.45	.49	.28	.57	1.21	
가 족-형 태	핵 가족		3.48	2.49	1.65	3.48	3.92	15.02	3.24*
	친정동거 확대가족		3.18	2.95	1.59	3.55	3.91	15.18	3.77**
	시댁동거 확대가족		3.20	2.85	1.34	3.49	4.05	14.93	4.73**
	F 값		.38	.45	.24	.17	.21	1.22	
가정부 유무	유		3.68	2.09	2.18	3.47	3.89	15.31	2.41*
	시 간 제		3.59	2.07	1.93	3.81	3.74	15.14	2.51*
	무2		3.33	2.75	1.43	3.46	3.99	14.96	3.26*
	F 값		1.14	2.70	2.13	.72	.84	1.34	
計		3.41	2.59	1.59	3.49	3.95	15.03	3.13**	

** p<.001

* p<.005

〈表-6〉 밥짓기 횟수

상황변수	집 단	1 회	2 회	3 회	4 회	計	비 고
		N (%)	N (%)	N (%)	N (%)	N (%)	
주부의 직업유무	유	21(26.3)	50(62.5)	9(11.3)	0(0.0)	80(100.0)	$df=3$ $\chi^2=9.30$ $p<.05$
	무	34(12.8)	203(76.3)	27(10.2)	2(0.8)	266(100.0)	
주부의 교육수준	국 졸	4(13.8)	23(79.3)	2(6.9)	0(0.0)	29(100.0)	$df=9$ $\chi^2=16.46$ $n.s$
	중 졸	4(6.9)	47(81.0)	7(12.1)	0(0.0)	58(100.0)	
	고 졸	21(14.2)	107(72.3)	20(13.5)	0(0.0)	148(100.0)	
	대 졸	26(23.4)	76(68.5)	7(6.3)	2(1.8)	111(100.0)	
주부의 연령 (세)	← 30	19(23.8)	58(72.5)	3(3.8)	0(0.0)	80(100.0)	$df=9$ $\chi^2=21.2$ $p<.05$
	31 ~ 40	21(21.0)	71(71.0)	8(8.0)	0(0.0)	100(100.0)	
	41 ~ 50	14(12.2)	83(72.2)	17(14.8)	1(0.9)	115(100.0)	
	51 →	1(1.9)	41(80.4)	8(15.7)	1(1.9)	51(100.0)	
가정의 수입 (만원)	← 20	8(11.0)	60(82.2)	5(6.8)	0(0.0)	73(100.0)	$df=9$ $\chi^2=14.97$ $n.s$
	21 ~ 40	32(18.7)	121(70.8)	18(10.5)	0(0.0)	171(100.0)	
	41 ~ 50	12(20.7)	39(67.2)	6(10.3)	1(1.7)	58(100.0)	
	51 →	3(6.8)	33(75.0)	7(15.9)	1(2.3)	44(100.0)	
가 족 수 (명)	1 ~ 2	4(13.8)	24(82.8)	1(3.4)	0(0.0)	29(100.0)	$df=12$ $\chi^2=40.11$ $p<.001$
	3 ~ 4	27(22.3)	89(73.6)	5(4.1)	0(0.0)	121(100.0)	
	5 ~ 6	21(15.4)	95(69.9)	20(14.7)	0(0.0)	136(100.0)	
	7 ~ 8	3(6.4)	37(78.7)	5(10.6)	2(4.3)	47(100.0)	
	9 →	0(0.0)	8(61.5)	5(38.5)	0(0.0)	13(100.0)	
가족 형태	핵 가족	45(17.4)	189(73.0)	24(9.3)	1(0.4)	259(100.0)	$df=6$ $\chi^2=9.66$ $n.s$
	친정동거 확대가족	2(9.1)	14(63.6)	6(27.3)	0(0.0)	22(100.0)	
	시댁동거 확대가족	8(12.3)	50(76.9)	6(9.2)	1(1.5)	65(100.0)	
가정부 유무	유	4(7.0)	41(71.9)	9(15.8)	2(3.5)	57(100.0)	$df=6$ $\chi^2=15.65$ $p<.05$
	시간제	4(14.8)	20(74.1)	3(11.1)	0(0.0)	27(100.0)	
	무	47(17.9)	19(72.9)	24(9.2)	0(0.0)	262(100.0)	
計		55(15.9)	253(73.1)	36(10.4)	2(0.6)	346(100.0)	

개要素에 따른 各集團別 X^2 검증결과 $p<.05$ 水準에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表-6〉에서 밥짓기 횟수는 家族數($p<.001$), 主婦의 年齡($p<.05$), 家庭婦有無($p<.05$), 主婦의 職業有無($p<.05$)에 따라 差異가 있었다. 밥짓기 횟수는 모든 集團에서 1日 2회가 7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으나 家族數가 많고 主婦의 年齡이 많으며 家庭婦가 있고 主婦가 職業이 없을 때 밥짓기 횟수는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7〉에서 김치담그기 횟수는 主婦의 年齡($p<.001$), 家庭의 收入($p<.001$), 主婦의 教育水準($p<.05$)에 따라 差異가 있었다. 7~10日이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나 家庭

〈表-7〉 김치담그기 횟수

상 황 변 수	집 단	1회/15일	1회/10일	1회/ 7일	1회/ 3일	1회/ 2일	計	비 고
		N (%)	N (%)	N (%)	N (%)	N (%)	N (%)	
주부의 직업유무	유	9(11.25)	25(31.25)	33(41.3)	11(13.75)	2(2.5)	80(100.0)	$df=4$ $x^2=1.22$ n.s
	무	31(11.7)	82(30.8)	123(46.1)	28(10.6)	2(0.8)	266(100.0)	
주부의 교육수준	국 출	8(27.6)	5(17.6)	11(37.9)	4(13.8)	1(3.4)	29(100.0)	$df=12$ $x^2=21.79$ $p<.05$
	중 출	3(5.2)	17(29.3)	29(50.0)	9(15.5)	0(0.0)	58(100.0)	
	고 출	11(7.5)	52(35.2)	72(48.8)	11(7.4)	2(1.4)	148(100.0)	
	대 출	18(16.2)	33(29.7)	44(39.6)	15(13.5)	1(0.9)	111(100.0)	
주부의 연령 (세)	← 30	15(18.8)	25(31.3)	31(38.7)	8(10.0)	1(1.3)	80(100.0)	$df=12$ $x^2=42.20$ $p<.001$
	31 ~ 40	17(17.0)	26(26.0)	42(42.0)	15(15.0)	0(0.0)	100(100.0)	
	41 ~ 50	5(4.3)	40(34.8)	62(53.9)	7(6.1)	1(0.9)	115(100.0)	
	51 →	3(5.9)	16(31.4)	21(41.2)	9(17.6)	2(3.9)	51(100.0)	
가정의 수입 (만원)	← 20	8(11.0)	24(32.9)	25(34.2)	14(19.2)	2(2.7)	73(100.0)	$df=12$ $x^2=41.70$ $p<.001$
	21 ~ 40	16(9.4)	57(33.3)	82(48.0)	15(8.8)	1(0.6)	171(100.0)	
	41 ~ 50	7(12.1)	12(20.7)	35(60.4)	3(5.1)	1(1.7)	58(100.0)	
	51 →	9(20.5)	14(21.8)	14(31.8)	7(15.9)	0(0.0)	44(100.0)	
가 족 수 (명)	1 ~ 2	6(20.6)	11(37.9)	9(31.0)	3(10.4)	0(0.0)	29(100.0)	$df=16$ $x^2=22.95$ n.s
	3 ~ 4	17(14.0)	39(32.2)	54(44.6)	10(8.3)	1(0.8)	121(100.0)	
	5 ~ 6	11(8.1)	44(32.3)	63(46.3)	15(11.0)	3(2.3)	136(100.0)	
	7 ~ 8	5(10.7)	10(21.3)	22(46.8)	10(21.3)	0(0.0)	47(100.0)	
	9 →	1(7.7)	3(23.1)	8(61.5)	1(7.7)	0(0.0)	13(100.0)	
가 족 형 태	핵 가족	31(12.0)	84(32.5)	113(43.6)	28(10.8)	3(1.2)	259(100.0)	$df=8$ $x^2=7.35$ n.s
	친정동거 확대가족	3(13.6)	4(18.2)	13(59.1)	1(4.5)	1(4.5)	22(100.0)	
	시댁동거 확대가족	6(9.2)	19(29.2)	30(46.1)	10(15.4)	0(0.0)	65(100.0)	
가정부유무	유	8(13.0)	15(26.4)	26(45.7)	8(13.0)	0(0.0)	57(100.0)	$df=8$ $x^2=7.65$ n.s
	시 간 제	3(11.1)	12(44.4)	8(29.6)	4(14.8)	0(0.0)	27(100.0)	
	무	29(11.1)	80(30.6)	122(46.6)	27(10.7)	4(1.5)	262(100.0)	
計		40(11.6)	107(30.9)	156(45.0)	39(11.3)	4(1.2)	346(100.0)	

의 收入이 낮고 主婦의 年齡이 높은 集團에서 김치를 자주 담그고 있으며 大卒·國卒에 비해 中·高卒의 主婦가 자주 담그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8〉에서 상차림횟수는 家族數($p<.001$) 主婦의 年齡($p<.001$), 主婦의 教育水準($p<.001$), 家庭婦有無($p<.01$), 家庭의 收入(p

$<.05$)에 따라 差異가 있었다. 家族數가 많고 主婦의 年齡이 많고 家庭婦가 있고 家庭의 收入이 많은 集團에서 상차림 횟수가 많으며 大卒·國卒에 비해 中·高卒의 主婦에서 상차림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을 한끼에 2回 以上 차리는 理由는 家族員의 出勤, 登校時間의 差異(72.3%), 歸

〈表-8〉상차림 횟수

상황변수	집 단	1 회	2 회	3 회	4 회	計	비 고
		N (%)	N (%)	N (%)	N (%)	N (%)	
주부의 직업유무	유 무	39(48.8)	31(38.8)	6(7.5)	4(2.5)	80(100.0)	$df=3$ $x^2=1.32$ <i>n.s</i>
		123(46.2)	100(37.6)	32(12.0)	11(4.1)	266(100.0)	
주부의 교육수준	국 출	18(62.1)	10(34.5)	1(3.4)	0(0.0)	29(100.0)	$df=9$ $x^2=29.33$ $p>.001$
	중 출	20(34.5)	31(53.4)	5(8.6)	2(3.4)	58(100.0)	
	고 출	56(37.8)	57(38.5)	25(16.9)	10(6.8)	148(100.0)	
	대 출	68(61.3)	33(27.0)	7(6.3)	3(2.7)	111(100.0)	
주부의 연령 (세)	← 30	58(72.5)	21(26.3)	1(1.3)	0(0.0)	80(100.0)	$df=9$ $x^2=51.47$ $p<00.1$
	31 ~ 40	55(55.0)	32(32.0)	8(8.0)	5(5.0)	100(100.0)	
	41 ~ 50	35(30.4)	56(48.7)	18(15.7)	6(5.2)	115(100.0)	
	51 →	14(27.5)	22(43.1)	11(21.6)	4(7.8)	51(100.0)	
가정의 수입 (만원)	← 20	35(47.3)	24(32.9)	7(9.6)	7(9.6)	73(100.0)	$df=9$ $x^2=17.$ $p<.05$
	21 ~ 40	92(53.8)	61(35.7)	14(8.2)	4(2.3)	171(100.0)	
	41 ~ 50	22(37.9)	25(43.1)	10(17.24)	1(1.7)	58(100.0)	
	51 →	13(29.5)	21(43.8)	7(15.9)	3(6.8)	44(100.0)	
가 족 수 (명)	1 ~ 2	26(89.7)	3(10.3)	0(0.0)	0(0.0)	29(100.0)	$df=12$ $x^2=65.40$ $p<.001$
	3 ~ 4	73(60.3)	42(34.7)	5(4.1)	1(0.8)	121(100.0)	
	5 ~ 6	47(34.6)	63(46.3)	19(14.0)	7(5.1)	136(100.0)	
	7 ~ 8	13(27.7)	17(36.2)	11(23.4)	6(12.8)	47(100.0)	
	9 →	3(23.1)	6(46.2)	3(23.1)	1(7.7)	13(100.0)	
가족 형태	핵 가족	133(51.4)	91(35.1)	27(10.4)	8(3.1)	259(100.0)	$df=6$ $x^2=12.40$ $p<.1$
	친정동거 확대가족	8(36.4)	9(40.9)	4(18.2)	1(4.6)	22(100.0)	
	시댁동거 확대가족	21(32.3)	31(47.7)	7(10.8)	6(9.2)	65(100.0)	
가정부유무	유	17(29.8)	25(43.8)	10(17.5)	5(8.8)	57(100.0)	$df=6$ $x^2=11.74$ $p<.01$
	시간계	14(51.9)	8(29.6)	4(14.8)	1(3.7)	27(100.0)	
	무	131(50.0)	98(37.4)	24(9.2)	9(3.4)	262(100.0)	
計		162(46.8)	131(37.9)	38(11.0)	15(4.3)	346(100.0)	

家時間의 差異(13.3%), 祖父母의 상을 따
로 차림(6.4%), 子女들의 과외공부(3.7%)
順으로 나타났다.

以上の 3개 要素를 綜合해 보면 調理횟수
에 第一 影響을 미치는 상황변수는 主婦의
年齡으로 나타났다.

④ 반찬수: 아침에는 4~5가지, 점심에는

2~3가지, 저녁에는 5~6가지가 높은 비율
을 차지했다.

반찬수와 상황변수와의 관계를 各集團別
로 X^2 검증결과 $p<.05$ 水準에서 有意한 것으
로 해석했다. 〈表-9〉에서 家庭婦有無($p<.01$)
家族數($p<.05$), 家庭의 收入($p<.05$)에 따라
差異가 있었다. 家庭婦가 있고 家庭의 收入

〈表-9〉 반찬수

상 황 변 수	집 단	1~2	3~4	5~6	7~8	計	비 고
		N (%)	N (%)	N (%)	N (%)	N (%)	
주부의 직업유무	유 무	17(21.3)	40(50.0)	19(23.8)	4(5.0)	80(100.0)	$df=3$ $\chi^2=5.00$ n.s
		33(12.4)	148(55.6)	77(28.9)	8(3.0)	266(100.0)	
주부의 교육수준	국졸	8(27.6)	16(55.2)	4(13.8)	1(3.5)	29(100.0)	$df=9$ $\chi^2=13.63$ n.s
	중졸	7(12.1)	31(53.4)	20(34.5)	0(0.0)	58(100.0)	
	고졸	23(15.5)	74(50.0)	46(31.1)	5(3.4)	148(100.0)	
	대졸	12(10.8)	67(60.4)	26(23.4)	6(5.4)	111(100.0)	
주부의 연령 (세)	← 30	12(15.0)	45(56.3)	21(26.3)	2(2.5)	80(100.0)	$df=9$ $\chi^2=14.99$ $p<.1$
	31 ~ 40	5(15.0)	60(60.0)	22(22.0)	3(3.0)	100(100.0)	
	41 ~ 50	13(11.3)	64(55.7)	37(32.2)	1(0.9)	115(100.0)	
	51 →	10(19.6)	19(37.3)	16(31.4)	6(10.0)	51(100.0)	
가정의 수입 (만원)	← 20	17(23.3)	45(61.6)	9(12.3)	2(2.7)	73(100.0)	$df=9$ $\chi^2=19.24$ $p<.05$
	21 ~ 40	22(12.9)	95(55.6)	49(28.7)	5(2.9)	171(100.0)	
	41 ~ 50	8(13.8)	26(44.8)	22(37.9)	2(3.4)	58(100.0)	
	51 →	3(6.8)	22(50.0)	16(36.4)	3(6.8)	44(100.0)	
가 족 수 (명)	1 ~ 2	4(13.8)	18(62.1)	5(17.2)	2(6.9)	29(100.0)	$df=12$ $\chi^2=24.10$ $p<.05$
	3 ~ 4	21(17.4)	70(57.9)	29(24.0)	1(0.8)	121(100.0)	
	5 ~ 6	19(14.0)	69(50.7)	44(29.4)	4(2.9)	136(100.0)	
	7 ~ 8	5(0.6)	26(55.3)	14(29.8)	2(4.3)	47(100.0)	
	9 →	1(7.7)	5(38.5)	4(30.8)	3(23.1)	13(100.0)	
가 족 형 태	핵가족	40(15.4)	144(55.6)	66(25.5)	9(3.4)	259(100.0)	$df=6$ $\chi^2=3.29$ n.s
	친정동거 확대가족	3(13.6)	10(45.5)	8(36.4)	1(4.5)	22(100.0)	
	시댁동거 확대가족	7(10.8)	34(52.3)	22(30.8)	2(3.1)	65(100.0)	
가정부유무	유	6(10.5)	27(47.4)	17(29.8)	7(12.3)	57(100.0)	$df=6$ $\chi^2=19.48$ $p<.01$
	시간제	5(18.5)	11(40.7)	10(37.0)	1(3.7)	27(100.0)	
	무	39(14.9)	150(57.3)	69(26.3)	4(5.3)	262(100.0)	
計		50(14.4)	188(54.3)	96(27.8)	12(3.5)	346(100.0)	

이 많으며 家族數가 많은 集團에서 반찬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찬數가 食單의 質을 左右하는 것이 아니며⁸⁾ 반찬數가 많은 것은 慣習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漸次 簡素化되어야 할 것이다.

⑤ 부업일 담당자 및 助力度: 부업일의 담당자와 상황변수와의 關係를 各 集團別로 χ^2

검증결과 $p<.05$ 水準에서 有意한 것으로 해석했다. 〈表-10〉에서 부업일의 主담당자는 家庭婦有無($p<.001$), 家族形態($p<.001$), 家庭의 收入($p<.001$), 主婦의 職業有無($p<.001$), 家族數($p<.001$), 主婦의 年齡($p<.05$)에 따라 差異가 있었다. 모든 集團에서 부업일의 主담당자는 主婦이나 家庭婦가 있는

〈表-10〉 부업일 담당자

상 황 변 수	집 단	주 부	가정부	시아머니	친정어머니	딸	計	비 고
		N (%)	N (%)	N (%)	N (%)	N (%)	N (%)	
추부의 직업유무	유 무	52(65.0)	17(21.3)	6(7.5)	2(2.5)	3(3.8)	80(100.0)	$df=4$ $\chi^2=18.47$ $p<.001$
		225(84.6)	34(12.8)	3(1.1)	1(0.4)	3(1.1)	266(100.0)	
추부의 교육수준	국 졸	22(75.9)	6(20.7)	0(0.0)	1(3.4)	0(0.0)	29(100.0)	$df=12$ $\chi^2=19.32$ $p<.15$
	중 졸	49(84.5)	3(5.2)	4(6.9)	0(0.0)	2(3.4)	58(100.0)	
	고 졸	124(83.9)	19(12.8)	2(1.4)	1(0.7)	2(1.4)	148(100.0)	
	대 졸	82(73.9)	23(20.7)	3(2.7)	1(0.9)	2(1.8)	111(100.0)	
추부의 연령 (세)	← 30	68(85.0)	8(10.0)	3(3.8)	1(1.3)	0(0.0)	80(100.0)	$df=12$ $\chi^2=25.75$ $p<.05$
	31 ~ 40	87(87.0)	7(7.0)	5(5.0)	1(1.0)	0(0.0)	100(100.0)	
	41 ~ 50	82(71.3)	25(21.7)	1(0.9)	1(1.0)	6(5.2)	115(100.0)	
	51 →	40(78.4)	11(21.6)	0(0.0)	0(0.0)	0(0.0)	51(100.0)	
가정의 수입 (만원)	←220	65(89.1)	3(4.1)	4(5.5)	0(0.0)	1(1.4)	73(100.0)	$df=12$ $\chi^2=72.49$ $p<.001$
	21 ~ 40	151(88.3)	11(6.4)	3(1.8)	1(0.6)	3(1.8)	171(100.0)	
	41 ~ 50	38(65.5)	15(25.9)	2(3.4)	1(1.7)	2(3.4)	58(100.0)	
	51 →	21(47.7)	22(50.0)	0(0.0)	1(2.2)	0(0.0)	44(100.0)	
가 족 수 (명)	1 ~ 2	23(79.3)	6(20.7)	0(0.0)	0(0.0)	0(0.0)	29(100.0)	$df=16$ $\chi^2=46.27$ $p<.001$
	3 ~ 4	106(87.6)	10(8.3)	3(2.5)	1(0.8)	1(0.8)	121(100.0)	
	5 ~ 6	109(80.1)	22(16.2)	4(2.9)	0(0.0)	1(0.7)	136(100.0)	
	7 ~ 8	34(72.4)	8(17.0)	2(4.3)	1(2.1)	2(4.2)	47(100.0)	
	9 →	5(38.5)	5(38.5)	0(0.0)	1(7.7)	2(15.4)	13(100.0)	
가족 형태	핵 가족	217(83.8)	36(13.9)	1(0.4)	0(0.0)	5(1.9)	259(100.0)	$df=8$ $\chi^2=76.44$ $p<.001$
	친정동거 확대가족	15(68.2)	4(18.2)	0(0.0)	3(13.6)	0(0.0)	22(100.0)	
	시댁동거 확대가족	45(67.7)	11(16.9)	8(12.3)	0(0.0)	1(1.5)	65(100.0)	
가정부유무	유	11(19.3)	44(77.2)	1(1.8)	1(1.8)	0(0.0)	57(100.0)	$df=8$ $\chi^2=223.19$ $p<.001$
	시 간 제	21(77.8)	5(18.5)	1(3.7)	0(0.0)	0(0.0)	27(100.0)	
	무	245(93.5)	2(0.8)	7(2.7)	2(0.8)	6(2.3)	262(100.0)	
計		277(80.1)	51(14.7)	9(2.6)	3(0.9)	6(1.7)	346(100.0)	

家庭에서는 家庭婦가 主담당자이었다. 核家族의 경우 부업일은 主로 主婦와 家庭婦가 담당하며 擴大家族에서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담당하는 比率이 높아지며, 收入이 적은 家庭일수록 主婦가 부업일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收入이 많은 家庭에서는 家庭婦에 대한 依存度가 높게 나타났

다. 主婦가 職業을 갖지 않고 家族數가 적으며 主婦의 年齡이 낮은 集團에서 主婦가 부업일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主婦가 職業을 갖거나 家族數가 많으며 主婦의 年齡이 높은 集團에서는 家庭婦나 其他 家族員에 대한 依存度가 높게 나타났다.

家庭婦나 그밖에 助力者가 있는때도 主婦

가 調理를 담당하는 理由는 主婦 스스로가 원함(47.1%), 子女들이 원함(13.0%), 남편이 원함(12.7%), 家庭婦가 잘못함(6.1%)의 順으로 나타났다.

부엌일에 對한 남편의 助力度는 상들어다 주기(40.4%), 수저놓기(32.3%), 시장보기(23.7%), 상에 반찬놓기(18.2%), 밥푸기(15.3%), 설겅이(14.8%), 반찬만들기(13.3%), 밥짓기(9.8%)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는 大部分이 部分的으로 行하여지고 있으므로 부엌일에 對한 남편의 助力度는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보인다.

4) 부엌일 簡素化 方案

부엌일 중에서 主婦가 가장 助力를 願하는 일은 상날르기(56.4%), 설겅이(31.5%), 간식준비(31.2%), 상차리기(30.6%), 시장보기(28.9%), 반찬만들기(7.5%), 밥짓기(2.6%)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부엌일 簡素化를 위해 主婦가 願하고 있는 事項을 우선 순위별로 보면,

- ① 便利하고 效率인 調理器具(56.9%)
- ② 便利한 부엌構造(53.8%)
- ③ 상차림 횟수 줄이나(47.1%)
- ④ 시장보기 횟수 줄이기(30.6%)
- ⑤ 家族員의 協助(29.2%)
- ⑥ 加工食品 개발(27.2%)
- ⑦ 설겅이의 機械化(24.0%)
- ⑧ 반찬數 줄이기(14.5%)의 順이었다.

IV. 結論 및 提言

1. 주방구조·시설 및 조리기구

在來式 부엌이 3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엌일의 非能率을 초래하므로 하루 速히 改造되어야겠고 主婦들이 願하는 도

움 中 第一位인 상날르기의 手苦를 덜기 위해 食堂도 마련되어야겠다.

調理器具를 51.2%~92.8%로 相當率 保有하고 있었는데 이들 器具들이 十分 活用되어야겠다. 다음에 調理器具 活用度 等에 對하여 調査해 보고져 한다.

2. 食生活計劃 및 食品購入

豫算은 78%의 主婦가 作成하고 있었으며 作成치 않는 理由中 60.5%가 습관 때문인 것으로, 食生活計劃의 非科學性을 들어내고 있다.

食品購入의 回數가 잦은 便이었다. 냉장고의 保有率이 91.3%인데 食品購入回數가 잦은 것은 貯藏器具의 活用을 잘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主婦들에게 食品貯藏教育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3. 食生活管理行動

調理 및 拭處理에 所要되는 時間이 하루에 平均 280.4분이었다. 調理回數, 반찬수를 줄이므로써 調理時間을 보다 줄일 수 있겠는데 調理回數는 主婦의 年齡이 많을수록 그리고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많았으며 반찬數는 家庭婦가 있고 家族數가 많은 家庭이 많았다. 반찬數가 많은데서 오는 非經濟性을 是正하기 위해 日常食單은 營養이 考慮된 一品料理 中心으로 이루어져야겠다.

調理方法은 한국음식의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調理時 考慮되는 要素는 家族의 食性, 음식의 맛, 영양, 비용, 調理時間의 順으로 나타났는데 調査對象者의 教育水準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主婦들이 그의 營養知識을 食生活에 活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營養을 干先으로 考慮하는 方向으로 是正되어야겠고 家族에게 營養教育도 해서

좋지 못한 食性は 차츰 바꾸는 努力도 食生活管理者가 해야 할 것이다.

부엌일 담당자는 主婦가 78%로 나타났는데 家庭婦가 있는 家庭에서는 家庭婦가 담당하는 比率이 높았다(94.5%). 家庭婦는 어디까지나 食生活管理者의 助力者이어야겠다. 營養知識이나 調理科學의 知識이 없고 家族이 아닌 家庭婦가 調理를 담당할 경우 家族營養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본다.

主婦의 부엌일에 對한 남편의 助力度는 部分的으로 40.4%~9.8%였다.

4. 食生活簡素化方案

주방의 구조·시설·調理器具等 物質的인 具備와 家族全員이 食生活管理者에게 協調하는 精神的인 面이 兩立될 때 食生活는 簡素化된다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1. 姜信珠外 二人：“生活時間管理의 實態調査”, 대한가정학회지, 6권, 1968.
2. 文秀才外五人：“미취학아동의 영양교육을 위한 사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권 3호, 1979.
3. 안숙자：“서울주부들의 영양교육현황에 관한 실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권 3호, 1977
4. 윤복자：“한국부엌의 과학적 검토와 제시”, 대한가정학회지, 10권 1호, 1972.
5. 윤복자：“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13권 2호, 1975.
6. 李仁喜：家庭經營과 管理, 修學社.
7. 이정우：“취사작업 능률화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권 4호, 1975.
8. 장명옥外 四人：“식생활간소화를 위한 표준식단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9권 1호, 1971
9. 玄己順：食生活管理, 敎文社, 1976.
10. Kinder, Faye; Meal management,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5.
11. Hall F.T., Schroeder M.P.: “Effects on Family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n Time Spent on Household Tasks”, Journal of Home Economics 61, January 1970.
12. Muse, Warienne: “Kitchen Equipment and Arrangement”, Vermont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Bulletin 375, Burlington, Vermont, 1965.
13. Walker, Kathryn E: “Homemaking Work Units for New York State Households”, Cornell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Memoir 353, New York, 1957.